

Merck, 밀리포아 사업 우디트 바트라 대표 임명

머크(Merck)는 일반의약품 사업부 우디트 바트라 대표를 밀리포아 사업부 대표로 임명했다.

머크는 자체 변화 프로그램인 <Fit for 2018>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생명과학, 일반의약품, 알레르기 사업 부문을 지휘할 책임자를 내부 승진방식으로 임명했다고 4월1일 발표했다.

2년 동안 일반의약품 사업부의 회복을 지휘했던 우디트 바트라는 로버트 예이츠를 이어 머크 밀리포아 사업부의 사장 겸 CEO(최고경영책임자)를 맡게 된다.

미국 빌레리카에 본사가 있는 머크 밀리포아 사업부는 생명과학기업에게 6만개 이상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부이다.

알레르고파마의 CEO 겸 글로벌 알레르기 사업부문 대표인 우타 케머리히-카일은 바트라의 뒤를 이어 일반 의약품 사업부의 사장 겸 CEO를 맡는다.

케머리히-카일은 머크그룹의 재무와 인수합병(M&A) 담당부서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으며 2012년 말 알레르기 사업부문에 합류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.

알레르고파마는 마르코 리나리가 승계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리나리는 2013년 머크 밀리포아 사업부와 기능성 소재 사업부 산하 오퍼레이팅 모델 집행 상업부문 담당에 임명된 바 있다.

칼-루드비히 클레이 머크 회장은 “<Fit for 2018> 프로그램의 성장기 진입과 더불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고객중심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”며 “내부에서 임명된 뛰어난 리더들이 성장 캠페인을 계속해서 견인해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새로운 인사는 5월15일부터 적용된다.

<화학저널 2014/04/01>